

은유와 사고: 정치적 은유를 중심으로

김현호^{1*}

¹공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Metaphor And Thought: Focused on Political Metaphors

Hyun Hyo Kim^{1*}

¹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은유적 표현이 단순한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닌 사고의 영역에 관련되어 있다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을 따른다. 이러한 관점은 은유는 특정한 사고의 틀(frame)을 동원하여 그 틀에 의해 대상을 보게 하므로 어떤 한 면을 부각시키는 반면 여전히 실재하는 다른 면을 감추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 주목한다. 정치에서의 은유표현들은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Lakoff는 미국의 보수주의에는 '엄한 아버지' 모델이라는 도덕관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엄한 아버지' 모델에 근거한 동일한 은유가 조지 H. 부시 대통령의 걸프전 연설문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 연설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based on the Cognitive Linguistics point of view on metaphor. Metaphors are not a matter of language use or rhetorics but of a conceptual frame, where thoughts work. The conceptual frames can highlight one aspect affecting our lives while hiding the other aspect of the facts. Politicians use metaphors to persuade people and justify their political decisions. Lakoff argues that the Republicans in the U.S. have their own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the 'strict father model' of the conservatives, which can be found in important political speeches. Political metaphors supporting this view are found in the 'Attack on Iraq Speech' by G. H. Bush in 1991 and 'Operation Iraqi Freedom Address' by G. W. Bush in 2003.

Key Words : Cognitive linguistics, Lakoff, metaphor, Conceptual framework, Political metaphor, Conservatives

1. 서론

일반적으로 은유는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에 많이 사용된다고 알고 있으나, 사실 은유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1) Margaret Thatcher is a bulldozer.
- 2) 시장 직까지 내걸고 배수진 친 오세훈 시장

앞의 두 예문에서처럼 영국의 수상이었던 대처여사가 획기적이고 독단적인 정부운영을 한 것을 불도저에 비유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정치적 결단을 적과

대치하여 살거나 죽을 수 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의 전쟁에 비유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은유적 표현들이다. 이렇게 은유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사물이나 대상을 사용하는 기제로서, 은유적 표현들은 그 문장을 사용한 화자의 의도가 청자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게 돕는다.

은유는 과학이나 정치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새로운 과학이론이 소개될 때 우리는 기존의 지식에 빗대어 설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자 구름electron cloud' 이라던가, 질병의 치료를 전투에 비유한 '우리는 에이즈 퇴치의 최전선에서 일한다We are the front line in the battle against AIDS'[1]같은 표현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설득하기 위한 은유적 표현들이

이 논문은 2008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과학 학술연구)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김현호(hhkim@kongju.ac.kr)

접수일 11년 09월 22일

수정일 11년 10월 05일

게재확정일 11년 10월 06일

정치 연설에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모든 정치적 행위는 언어를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사용되는 은유적 표현들은 정치적 사실은 물론 정치적 의도도 잘 드러내지 않으며, 대중들에게 어떤 한 면만 부각시키게 된다.

인지언어학자인 Lakoff & Johnson(1980)은 수사학 등 언어사용의 영역에서 다루어진 종전의 은유 이론에 반대 한 후 인지언어학의 관점은 은유는 사고의 영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은유표현은 단순한 말의 유희 즉, 언어 층위에서의 작업이 아니고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인 개념적 틀frame을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개념적 틀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정보를 처리할 때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채 인지적 잠재의식으로 작동한다[2]는 주장은 은유적 표현이 갖는 힘에 주목하게 한다.

Lakoff(1991:1)은 걸프전 때 조지 H.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을 히틀러에 비유하는 은유적 표현들을 사용하여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음[3]을 간파하였다.

The discourse over whether we should go to war in the gulf is a panorama of metaphor....The President says that the US is in the gulf to "protect freedom, protect our future, and protect the innocent", and that we must "push Saddam Hussein back" Saddam is seen as Hitler.

이를 증명하듯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사담 후세인은 히틀러다’라는 은유적 표현을 공적으로 사용하였다[4].

Think of all the countries that said, 'Well, we don't have enough evidence (to attack Germany)', said Rumsfeld. "Mein Kampf(Hitler's infamous book) had been written. Hitler had indicated what he intended to do. 'Maybe he won't attack us' (they said). Well, there are millions of dead because of the miscalculations.

계속해서 Lakoff(2004)는 미국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사고의 틀과 그들의 언어사용 더 구체적으로는 은유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미국의 진보주의 정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위해서는 공화당이 사용하는 틀에서 벗어나 민주당의 이념을 담은 틀로 재구성reframing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5]. 이러한 조언 덕분에 2008년 미국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가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본고에서는 은유가 단순한 언어 사용의 영역이 아닌 사고의 영역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을 채택한다. 정치에서 사용된 은유적 표현들이 어떻게 틀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Lakoff(1991, 2004, 2008)의 주장을 근거로 1991년 조지 H 부시대통령의 걸프전Persian Gulf War 개시 연설문, 2003년 조지 W 부시대통령의 이라크전Operation Iraqi Freedom 연설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은유와 사고에 관한 인지언어학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3장에서는 ‘엄한 아버지’ 모델 도덕관을 갖는 미국 보수주의의 개념적 틀을 실제 사용된 은유적 표현들을 통해 확인한다. 그 결과 미국의 공화당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후보지명자의 연설문에는 미국 보수주의 전통의 이념이 담긴 고유한 틀이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2. 은유와 사고

은유에 관한 과거의 전통적인 견해는 은유적 표현은 단순한 언어의 일탈이며 비유적 표현에 지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한다고 하여 언어 외적인 영역 즉, 언어사용의 영역에서 다루어왔다. 그러나 Lakoff & Johnson(1980) 이후로 은유를 사고의 영역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인지언어학자들의 노력이 Grand (1994), Ivie(1999), Paten(2000), Kövecses(2002), Nogales(1999), Lakoff(1991, 1995, 2004, 2008)로 이어졌다.

은유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이 아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경험들에 근거하는 은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념체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은유는 단순한 시적표현이 아니라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종류의 개념적 틀 즉, 어떤 종류의 은유에 의지해서 사물이나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그 틀에 의해 보여 지지 않는 것 즉, 감추어지는 진실이 있게 된다.

은유: 노동은 자원이다.

[LABOR IS RESOURCES]

- 3) 교육인적자원부
- 4) 소재산업에 기술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은유: 시간은 자원이다.

[TIME IS RESOURCES]

- 5) 나는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 6) 시간을 유효하게 써야 한다.

위의 예문 3)과 4)는 ‘노동은 자원’이라는 은유에서 파생되는 은유적 표현들이며, 예문 5)와 6)은 ‘시간은 자원’

이라는 은유에 의한 표현들이다. 3)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천연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의 노동을 자원으로 보는 산업사회의 관점을 그대로 정부기관의 명칭에 반영한 것이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s라는 은유적 표현에는 노동을 물질적 자원과 마찬가지로 사용하거나 개발하여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산업사회가 만들어 낸 틀이 작동하고 있다. 예문 5)는 시간을 마치 상품처럼 소비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틀이 작동한다. 이 두 가지 은유는 자본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은유이다.

‘노동은 자원이다’의 은유는 다른 은유와 마찬가지로 감추는 면이 있게 되는데,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 성향, 만족여부 등을 무시하게 되어 결국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시간은 자원이다’ 은유의 부각시키는 면은 노동을 계속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무 목적 없이 주말이나 휴가를 보내는 경우의 시간의 측면을 보지 못하게 한다[6].

우리의 사고는 은유적 표현에 의해서 틀이 짜여 지고, 그 틀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식을 그 안에 고정시키게 된다. Lakoff(2004)는 논리를 전개할 때 사고의 틀 짜기framing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레이코프 교수는 한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뒤 잠시 동안 학생들에게 시간을 준 후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능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성공하지 못했다. 특정 개념의 틀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개념적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해주는 정신적인 구조이며, 어떤 단어가 갖는 함축적인 의미와 그러한 가치가 담긴 단어들이 놓인 문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틀은 보거나 들을 수는 없는 이른바 ‘인지적 잠재의식’의 일부이며 의식의 세계에서는 접근할 수 없으나 우리가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정보를 처리할 때 작동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5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세금구제tax relief’라는 은유적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다. 이때 ‘구제’라는 단어가 놓이는 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구제’가 필요한 경우란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구제’라는 틀이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공화당은 고통을 구제하는 정당이 되고 반대한 정당은 고통을 주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세금은 고통이며, 고통을 없애기 위한 감세는 구제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세금구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논쟁에서 지게 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직관적인 평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틀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적 은유가 사용될 때는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기 위하여 틀을 재구성하게 된다. 즉,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틀은 언어들로 작동되므로 새로운 틀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다르게 생각하려면 우선 다르게 말하여야 한다.

3. 미국 보수주의의 가치관

미국의 보수주의적 가치관과 진보주의적 가치관은 ‘엄한 아버지strict father’와 ‘자애로운 아버지nurturant father’의 두 가지 대조되는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엄한 아버지’ 모델은 권위와 통제를 강조하며 ‘자애로운 아버지’ 모델은 공감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국의 보수주의 전통이 갖는 가치관인 ‘엄한 아버지’의 모델은 개신교적 윤리관에 기초하며 아담 스미스의 경제관이 결합된 것이다.

‘엄한 아버지’의 도덕관은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다. 또한 항상 경쟁하여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된다. 선과 악 같이 이분법적인 판단을 한다. 아이들은 때로는 체벌을 통해서라도 선도를 하여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엄한 아버지’ 모델은 국가관에도 확장되어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의 지도자로 생각하게 한다[7]. 이런 관점에 의해 미국은 세계의 질서를 관장하는 국가이며 ‘불량국가’를 선도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악의 축’ 또는 ‘불량 국가’로 지목된 국가들에 대한 전쟁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악의 축’ ‘테러의 중앙은행’ ‘불량국가’등의 정치적 은유 표현들은 일반인들에게 아주 익숙하다.

과거엔 주로 종교적 도덕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악’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이며, 나찌에 의해 자행된 대량학살의 범죄행위를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시작된다. 그 이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라고 지칭하였으며, 그 후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지칭하면서 악의 위협으로부터 선을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악’은 위협, 불안 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데 이는 결국에 정치적인 행동의 결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무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라크를 ‘악의 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전쟁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정당한 전쟁의 은유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추게 된다. 따라서 ‘선’이나 ‘악’이나 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 [8].

미국 보수주의의 경제관은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의 경제관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 된다는 것이다. 이때 행복은 부와 만나게 된다. 즉, 경쟁사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와 자기 통제와 자립심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개인의 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엄한 아버지’ 모델에서는 게으름이란 내면의 적에 굴복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비도덕적이며 악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은 삭감해야 하는 결론까지 이르게 된다. 조지 W 부시대통령의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한다는 기조의 ownership-society 정책은 공화당이 기업의 세금을 구제해 준다는 은유를 사용한다. 그러나 세금구제의 은유는 사회보장에 쓸 예산이 없어진다는 점은 감추게 된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의 ‘엄한 아버지’ 모델은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공화당의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 3.1에서는 공화당 출신의 조지 H 부시대통령의 걸프전 연설문, 3.2에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연설문에 ‘엄한 아버지’ 모델에 기초한 ‘구제의 틀’ 은유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3.1 조지 H. 부시 대통령 연설문의 은유

1991년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H. 부시의 걸프전 연설문에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많은 은유적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처음에 조지 H. 부시는 사담 후세인이 원유를 가지고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기방어의 틀self defence frame’이라는 개념적 틀로 전쟁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No Blood for Oil’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반전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자 이라크 군에 의해 벌어지는 강간을 목격했다는 쿠웨이트 외교관 딸의 증언을 방송하고 그 후에는 ‘구출의 틀rescue frame’로 바꾸게 된다. ‘구출의 틀’은 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엄한 아버지’ 모델에서 근거하는 도덕관과 닿아 있다. 결국 ‘구출의 틀’은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전쟁을 정당화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게 된다[9].

조지 H. 부시의 연설문[10]에서 ‘구출의 틀’을 지원하는 은유 중 ‘국가는 사람이다’와 ‘이라크는 악당이다’ 그

리고 ‘미국은 영웅이다’가 사용된 은유적 표현들을 보자.

은유: 국가는 사람이다

[A STATE IS A PERSON]

7) invaded a small and helpless neighbour

8) family of peace-loving nations

9) countries from five continents,... have forces in the Gulf area standing shoulder-to-shoulder against Saddam Hussein

7), 8), 9)의 예문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국가를 사람으로 표현한다. ‘이웃’ ‘가족’ ‘어깨를 나란히 서다’라는 표현들은 국가를 사람으로 비유한다.

은유: 이라크는 악당이다.

[IRAQ IS A VILLAIN]

10) Saddam Hussein systematically raped, pillaged, and plundered a tiny nation.

11) The terrible crimes and tortures committed by Saddam's henchmen

은유: 쿠웨이트는 희생자다

[KUWAIT IS A VICTIM]

12) He subjected the people of Kuwait to unspeakable atrocities, and among those, maimed and murdered innocent children.

13) Saddam Hussein dug in and moved massive forces into Kuwait

예문 10), 11)에서 사용된 ‘난폭하게’, ‘강간, 약탈, 강탈, 범죄, 고문’라는 표현들에 의해 사담 후세인이라는 환유metonymy로 표현된 이라크는 악당이 되고 12), 13)에서 아이들이 ‘잔혹행위’에 의해 ‘불구’가 되거나 ‘살해’되며 ‘무력’이 주둔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희생자가 된다.

은유: 미국은 영웅이다.

[AMERICA IS A HERO]

14) and... to drive Saddam from Kuwait by force.

15) We ... a new world order, a world where the rule of law, not the law of the jungle, governs the conduct of nations.

16) Kuwait will once again be free

‘구출의 틀’이 채택되고 그 틀에 필요한 요소인 악당과 희생자가 등장한 후, 14), 15), 16)에서 미국이 ‘영웅’

으로 등장한다. 영웅은 쿠웨이트에서 사담을 ‘몰아내고’ ‘국가들의 행동을 통제할’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쿠웨이트를 다시 ‘해방’시키게 된다.

3.2 조지 W 부시 대통령 연설문의 은유

1991년 걸프전이 있는 지 12년 후에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자유작전 Operation Iraqi Freedom’이라는 작전명으로 이루어지는 이라크 침공을 국민에게 발표한다. 이 연설문에서도 1991년 걸프전 때 사용한 ‘구출의 틀’에 기초한 은유적 표현들이 쓰이게 된다. 두 전쟁은 다른 상황이다.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 하였던 전통적인 전쟁이었고 2003년의 이라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었는데도 같은 ‘구출의 틀’이 사용된다. 사담 후세인은 악당이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영웅이 되며, 이라크 국민들은 희생자로 등장한다. 1991년에는 쿠웨이트가 희생자로 비추어졌지만 2003년에는 사담 후세인의 자국민인 이라크 국민들이 희생자로 등장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라크 전을 개시하기 몇 달 전에 이미 부시대통령은 사담후세인은 자국 국민들에게 강도 높은 고문과 강간, 살인, 고문을 저지른다고 발표를 하였으며[11], 2003년 3월에는 이라크전을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의 예문들은 조지 W 부시대통령의 이라크전 연설에서 인용된 것이다[12].

은유: 이라크는 악당이다.

[IRAQ IS A VILLAIN]

- 13) In this conflict, America faces an enemy who has no regard for conventions of war or rules of morality.
- 14) outlaw regime that threatens the peace with weapons of mass murder.

은유: 이라크 국민은 희생자이다.

[IRAQIS ARE VICTIMS]

- 15) American and coalition forces are... to disarm Iraq, to free its people,
- 16) ... remove a threat and restore control of that country to its own people.

은유: 미국은 영웅이다.

[AMERICA IS A HERO]

- 17) ... to defend the world from grave danger.
- 18) in the Middle East, the peace of a troubled world and the hopes of an oppressed people now depend on you.

13), 14)에서 이라크는 ‘전쟁의 협정’이나 ‘도덕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대량살상무기로 평화를 위협하는’ ‘범법자’이다. 15), 16)에서 희생자로 그려지는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과 다국적군에 의해 다시 ‘해방’되어야 하며 ‘위협’을 제거하고 국민들이 통치권을 회복할 것이다. 17), 18)에서 미국은 ‘심각한 위협’에 처한 세계를 ‘방어’하고 ‘난관에 처한 세계 평화’와 ‘압박받는 사람들의 희망’을 책임지는 영웅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라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한다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는 ‘구출의 틀’에 기반하는 은유적 표현들에 의해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다.

4. 결론

본고는 은유가 사고의 틀을 형성한다는 인지언어학적 입장에서 정치적 은유의 형성배경과 은유적 표현들이 갖는 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Lakoff(1995)가 주장하는 미국 보수주의의 ‘엄한 아버지’ 모델은 선과 악으로 세계를 구분하며 악으로 설정된 대상을 처벌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게 한다. 악당, 희생자, 그리고 영웅이 등장하는 ‘구출의 틀’을 형성하는 은유는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인 조지 H. 부시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991년의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전통적인 전쟁이었고, 2003년의 이라크전은 테러의 배후이며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이었다. 다른 시점과 다른 상황에서 그때와는 다른 대통령이 벌인 두 전쟁에 어떻게 똑같은 틀이 지속적으로 유효할까? Lakoff(2008:38)의 주장대로 사람들이 바른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것은 사실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틀이나 세계관과 맞지 않는 진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개념적 틀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사실들은 폐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출의 틀’은 계속 반복, 강화되어서 완전히 다른 상황의 두 전쟁에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은유가 설정하는 사고의 틀은 어떤 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다른 한 면은 감추며, 강력한 틀은 사실을 이긴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은유는 인명의 손실, 삶의 초토화 등과 같은 끔찍한 면을 감추게 된다. 일상적인 은유와 달리 정치적 은유는 우리의 삶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References

- [1] Reeves, C. "The Language of Science", p. 22, Routledge, NY, 2005
- [2] Lakoff, G.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Andrew Orthony(ed.), Metaphor and Thought 2nd, p. 202-203,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1993.
- [3] Lakoff, G., "Metaphor and War: The Metaphor System Used to Justify War in the Gulf", Journal of Urban and Cultural Studies vol. 2, no.1. p. 59-72, 1991.
- [4] Lobe, J. "New Justification for Iraq War.: Saddam Is Hitler ", Albion Monitor, Nov. 1, 2002, retrieved from <http://www.albionmonitor.com/0211a/copyright/saddamhitler.html>
- [5] Lakoff, G.,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p. 18, Chelsea Green Publishing, 2004.
- [6] Lakoff, G., "Metaphor, Morality, and Politics". p. 15-17, 1995. retrieved from <http://www.wvcd.org/issues/Lakoff.html>
- [7] Lakoff, G. &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p. 65-67,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0
- [8] Zournazi, M. "Keywords to War", p. 85-87, Scribe Publications, 2007.
- [9] Lakoff, G. "The Political Mind: Why You Can't Understand 21st Century American Politics with an 18th Century Brain", p. 37-39, Viking, 2008
- [10] Bush, G. H., "Attack on Iraq speech", 1991, retrieved from http://www.famousquotes.me.uk/speeches/George_Bush/
- [11] Bush, G. W., "Speech on Iraq", 2002, retrieved from <http://www.guardian.co.uk/world/2002/oct/07/usa.iraq>
- [12] Bush, G. W., 'Operation Iraqi Freedom Address', 2003, retrieved from <http://www.americanrhetoric.com/speeches/wariniraq/gwbushiraq31903.htm>

김 현 효(Hyun-Hyo Kim)

[종신회원]



- 1986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_영어학)
- 1995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_영어학)
- 1996년 8월 ~ 2005년 2월 : 천안공업대학 교수
- 2005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관심분야>

영어학, 영어교육, 의미론